



프로야구 2016 신인드래프트에서 KIA에 지명된 내야수 최원준(서울고), 외야수 이진영(선린인터넷고), 투수 전상현(상원고·사진 왼쪽부터)이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최원준·남재현·정동현·전상현·서덕원 이진영·김규성·신범수·이승우·류승현 KIA 고졸 '아기호랑이'들 미래 밝다

## 프로야구 신인 2차 드래프트

'호랑이 군단'이 미래를 선택했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열린 2016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회에서 1라운드 3순위 최원준(서울고·내야수)을 지명하는 등 모두 10명의 '아기호랑이'를 낙점했다. KIA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9자리를 고등학교 선수로 채우면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미래를 선택했다.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린 최원준(우투좌타)은 2차 지명 고교 최대어로 꼽히는 자원이었다. 181cm, 82kg의 다부진 체격과 함께 공수주에서 수준급 실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좋은 타격에 강한 어깨까지 보유하면서 내야 경쟁의 새로운

축이 될 전망이다. 2라운드에서는 세광고 투수 남재현을 지명했다. 179cm, 80kg의 남재현은 좋은 투구 밸런스를 바탕으로 144km에 이르는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를 구사한다. 꾸준하게 구속도 오르고 있어 선발투수 재목이라는 평가다. 3라운드의 좌완 정동현(휘문고)은 탁월한 변화구 제구 능력으로 내년 시즌 불펜 자리에 도전할 재목이다. 4라운드의 다부진 체격과 함께 공수주에서 수준급 실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좋은 타격에 강한 어깨까지 보유하면서 내야 경쟁의 새로운

축이 될 전망이다. 2라운드에서는 세광고 투수 남재현을 지명했다. 179cm, 80kg의 남재현은 좋은 투구 밸런스를 바탕으로 144km에 이르는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를 구사한다. 꾸준하게 구속도 오르고 있어 선발투수 재목이라는 평가다. 3라운드의 좌완 정동현(휘문고)은 탁월한 변화구 제구 능력으로 내년 시즌 불펜 자리에 도전할 재목이다. 4라운드의 다부진 체격과 함께 공수주에서 수준급 실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좋은 타격에 강한 어깨까지 보유하면서 내야 경쟁의 새로운 축이 될 전망이다. 2라운드에서는 세광고 투수 남재현을 지명했다. 179cm, 80kg의 남재현은 좋은 투구 밸런스를 바탕으로 144km에 이르는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를 구사한다. 꾸준하게 구속도 오르고 있어 선발투수 재목이라는 평가다. 3라운드의 좌완 정동현(휘문고)은 탁월한 변화구 제구 능력으로 내년 시즌 불펜 자리에 도전할 재목이다. 4라운드의 다부진 체격과 함께 공수주에서 수준급 실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좋은 타격에 강한 어깨까지 보유하면서 내야 경쟁의 새로운

한 실력이면 발전 가능성이 큰 고졸 선수들을 위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 효천고 좌완 한승혁이 롯데 1라운드 선수로 지명됐고, 투수 최상민·포수 김기영 '진흥고 배터리'가 각각 NC, LG 유니폼을 입게 됐다. 동성고 투수 남기효는 야기 사자로 새출발을 한다. 이외에도 광주일고 출신의 성균관대 투수 노유성(kt)·단국대 내야수 장진혁(한화), 진흥고 출신의 중앙대 내야수 양구열(두산), 동성고 출신의 인하대 내야수 이성규(삼성)가 프로 선수의 꿈을 이뤘다. 순천대에서는 안준영·임대한 두 투수가 각각 롯데와 삼성의 지명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어릴때부터 타이거즈팬 이종범 같은 선수 되고 싶다”

### 'KIA새내기' 내야수 최원준

꿈을 이룬 '아기 호랑이' 최원준(서울고)이다. 내야수 최원준은 24일 진행된 2016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가장 먼저 KIA 유니폼을 입었다.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노렸던 고교 야수 최대어의 지명 소감은 “가고 싶은 팀에 가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였다. 최원준은 광주가 고향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타이거즈팬이었다. 타이거즈의 야구를 보면서 크고 자라면서 자연히 KIA 유니폼을 입는 꿈을 꿔다. 최원준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팀인데 이렇게 진짜 KIA 선수가 될 줄은 몰랐다. 투수가 좋았던 팀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KIA 야구를 보면서 야구 센스가 좋은 이종범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강한 어깨와 빠른발이 가장 닮고 싶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의 꿈을 미뤄둔 그는 타

고난 야구센스로 프로 무대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최원준은 “메이저리그에 엄청난 거 가고 싶었는데 가족들도 반대를 하고, 한국에 남아 더 실력을 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빠른 발과 공을 맞추는 센스를 좋게 봐주시길 바란다”며 “KIA는 배울 점이 많은 팀인 것 같다. 가서 최대한 많이 배우서 내년부터 1군에 나가고 싶다.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새로운 팀에서 뛰는 모습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두근거린다. 에이스 윤석민과 서울고 선배인 안치홍은 빨리 함께 야구를 하고 싶은 우상이다. 최원준은 “KIA에서 윤석민 선배님을 가장 만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KIA 팬이었는데 공도 빠르고 항상 나오면 이길 것 같은 분위기여서 팬이다”며 “안치홍 선배님도 빨리 군대 다녀오셔서 같이 야구를 하면 좋겠다. 자신있게 스윙을 하는 게 가장 멋있고 닮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석현준 5년만에 태극마크 슈틸리케호, 새 킬러 등장

## 월드컵 2차 예선 대표팀 발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2~3차전을 준비하는 슈틸리케호가 최정방 공격자원으로 포르투갈 리그에서 활약하는 석현준(비토리아FC)을 비롯한 유럽파를 대거 소집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24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내달 3일 라오스와 8일 레바논을 상대로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를 23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31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돼 결전을 준비한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원투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발탁된 석현준이다. 석현준이 태극마크를 단 것은 2010년 9월 이란과의 평가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5년 만에 슈틸리케 감독의 호출을 받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허벅지를 다친 기성용(스완지시티)을 필두로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 손흥민(레버쿠젠), 구자철, 박주호(이상 마인츠),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김진수(호펜하임)도 슈틸리케호의 월드컵 예선 여정에 동참했다. 헬스투링을 다쳤다가 회복한 기성용과 함께 지난 23일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

슈틸리케호 대표팀 명단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2~3차전	
<b>FW</b>	석현준(비토리아) 이정협(상주)
<b>MF</b>	이재성(전북) 기성용(스완지)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 권철호(수원) 박주호(마인츠) 황의조(성남) 정우영(잇셀 고베) 구자철(마인츠) 김승태(포항) 손흥민(레버쿠젠)
<b>DF</b>	임창우(울산)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권태휘(일화) 김기희(전북) 김영권(경주 유) 에버그란드(홍천) 수원 김진수(호펜하임) 정현수(광주 무리)
<b>GK</b>	김승규(울산) 권순태(전북) 김동준(연세대)

에 컨디션 난조로 결정하면서 우려를 자아낸 손흥민도 대표팀에 합류해 공격력에 힘을 보태게 됐다. 또 동아시아컵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대학생 골키퍼 김동준(연세대)은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고,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골키퍼 권순태(전북)도 2012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피시픽 오픈에서 우승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트로피를 들고 웃음지고 있다. 그는 아마추어 시절인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으로 이 대회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연합뉴스

# ‘시즌 3승’ 리디아 고, 세계 1위 박인비 추격 “GO”

## 캐나다 피시픽 여자오픈 우승

리디아 고(18)가 추격의 시동을 걸었다. 추격 대상은 세계랭킹 1위 박인비(27·KB금융그룹)다. 뉴질랜드 교포인 세계랭킹 2위 리디아고는 24일 캐나다 밴쿠버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피시픽 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리디아고는 박인비와의 세계랭킹 포인트 차이를 3.06점에서 1.87점으로 좁혔다. 리디아고는 시즌 첫 대회인 코츠 챔피언십에서 최나연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지난 2월 2일자로 박인비를 밀어내고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꿰찬 바 있다. 최연

소(만 17세 9개월 7일) 1위 기록이었다. 이후 리디아고는 2월 ISPS 한다 호주 여자 오픈과 4월 스윙인 스키즈 LPGA 클래식에서 우승하면서 기세를 몰아갔다. 하지만, 박인비가 재도약하면서 리디아고를 위협했다. 박인비는 2월 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 이어 4월 노스 텍사스 숏아웃에서도 우승하며 승수를 쌓았고, 지난 6월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리디아고를 1위에서 끌어내렸다. 이후 박인비는 더욱 상승장구했다. 박인비는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시즌 4승째를 거뒀다. 이 우승으로 박인비는 LPGA 메이저 5개 대회 중 4개를 석권

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까지 달성해 위압감을 더했다. 반면 리디아고는 약 4개월간 우승을 추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캐나다 피시픽 여자오픈에서 시즌 3승째를 거두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 특히 아마추어 시절이던 2012년, 2013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세계랭킹 3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연장 승부를 펼친 끝에 들어 올린 우승컵이어서 더욱 짜릿했다. 리디아고는 “멋진 한 주였다”며 “스테이시도 분명히 멋진 플레이를 했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시즌 4승째를 거뒀다. 이 우승으로 박인비는 LPGA 메이저 5개 대회 중 4개를 석권

## 강정호, 4경기 연속 안타

## 피츠버그, SF전 5-2 승리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4경기 연속 안타를 쳐냈다. 강정호는 2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 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90(348타수 101안타)으로 유지됐다. 강정호는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조디 머서가 경기 도중 유격수로 투입되면서 3루수로 수비 위치를 옮겼다. 강정호는 수비 위치와 관계없이 쉽지 않은 타구를 안정적으로 잡아 깔끔하게 처리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했다. 피츠버그는 이날 경기에서 5-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